

LG화학, 시스템소재 PMU, BIO HPL (Hi Pressure Melamine Laminated) 개발로 주방과 사무환경에 획기적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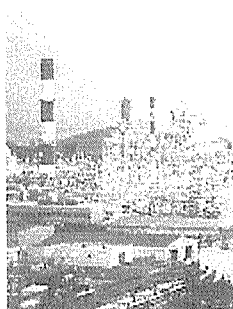
LG화학은 1947년 락희화학공업사로 출발하여 2000년 5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국내 최대의 종합화학회사로 50여년동안 그 명성을 잇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최고를 목표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당사는 사업군별로 크게 생명공학, 정보전자소재, 유화, 산업제로 나뉘어 지는데, 시스템소재 PMU는 산업재 사업본부의 장식재 사업부에 속해 있으며 이 사업부는 99년 최고 Hit상품인 깔끄미, 전자파를 차단하는 조은 세상 등으로 유명한 바닥재, 시스템 Panel을 주요 Item로 하는 사업부로서 건축자재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HPL 대중화와 국산화를 위해 1992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LG화학 시스템 소재는 10년 만에 주방과 사무가구 패션을 선도하는 Leader업체로 자리잡게 되었다.

HPL이 대중화 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구업체는 철재 등 단조로운 소재를 사용하였고, HPL은 전량 수입해 사용하는 실정이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시스템소재의 HPL 대량양산체제를 통한 Pattern Leadership은 소재 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있어서도 1세대 진일보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의 욕구가 더욱 다양화되고 환경친화적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시켜줄 만한 소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었었는데 이번에 시스템소재에서 Bio HPL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차별화와 함께 고객의 건강까지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공장전경]

Bio HPL은 기존 HPL에 위생, 건강개념을 도입하여 항균 특수처방물질을 통한 원적외선 방사효과를 내는 제품이다. 항균 특수처방물질이란 신비의 빛으로 알려진 원적외선을 발생, 방사하는 물질로 원적외선의 기능이 생활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신소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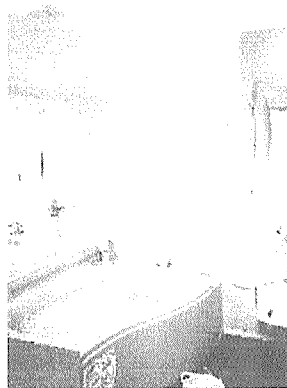
시스템소재 Bio 양산제품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일본의 원적외선 응용연구회에 보내어 면밀하게 측정된 결과 90% 이상의 방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체에 가장 좋다는 4~16사이 파장에서는 95%의 높은 방사율을 보이고 있어 Bio HPL'의 효과를 배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Bio란 열을 가해야만 좋다는 일반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상온용 특수물질을 사용(40도 용)하여 상온에서의 효과를 더욱 상승시켰다.

시스템소재의 Bio HPL은 싱크대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주부에게는 악취 및 습기제거, 살균/방충작 용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책상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이나 회사원에게는 공부방이나 사무실의 공기정화, 졸음, 피로, 스트레스 해소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Bio HPL은 국내 최초로 멜라민 화장판 항균(SF)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제품의 우수성과 신용도에도 더욱 믿음을 주고 있다. 또한 (사)한국원적외선협회로부터도 품질시험을 거쳐 품질보증업체(FI마크)로 지정받아 내수와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소재는 최근 항균 불연판넬을 개발함으로써 술한 인명손실을 불러일으켰던 대형화재사고로 사회적 불안과 불신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이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불연판넬]



[조은세상]



본 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전 화 : 02-3773-7579